

무등산·한강... 미디어아트에 담긴 시대별 '광주정신'

내달 2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 1년의 제작 기간, '무등, ...' 시각·청각·감성적 요소 아울러 '위기마다 나라 구한 정신 조명'

정지 장군부터 한강 작가에 이르기까지 '광주정신'은 호국이자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토양이었다. '어머니산' 무등산의 작명에 담긴 '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평등사상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발휘되는 정신적 기반이 됐다. 고려시대 정지 장군의 호국 정신을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김덕령 장군과 이순신 장군이 계승했으며 이때 정립된 의병 정신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발화됐다. 무등산의 탄생부터 한강 작가의 오월문화까지를 망라해 시대별 '광주정신'을 최첨단 기술로 풀어낸 예술이 펼쳐진다.

(재)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원하고 (주)아트주가 제작한 대형 미디어아트 작품 '무등, 바다와 대지의 노래'가 다음달 2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에 자리한 광주실감콘텐츠큐브에서 공연된다. 이 작품의 총괄기획은 정현기 (주)아트주 대표가, 총연출은 신도원 미디어아트



윤복합 홀로그래피 미디어아트 공연 '무등, 바다와 대지의 노래'가 다음달 2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에 자리한 광주실감콘텐츠큐브에서 선보인다. 사진은 해당 작품의 한 장면. (주)아트주 제공

스트가 맡았다. 이한주 음악감독이 작곡, 마고유니버스 무용단이 무용에 참여했다. 1년여에 걸쳐 제작된 대작으로 광주의 역사적 여정을 그린다.

작품은 무등산의 탄생부터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광주정신'의 흐름을 웅장하고 깊이 있는 서사로 풀어낸다. 무등산은 8700만년 전 화산 폭발로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바다에서 솟구친 뜨거운 용암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굳어지면서 주상절리와 같은 독특한 지형을 형성했다. 이런 탄생 과정은 마치 고난과 시련 속에서 피어난 광주 사람들의 혁명사를 상징적으로 반영한다. 무등산은 지리적으로 우수해 '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의미로 '무등'이라 작명됐으나, 동시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품는 평등의 정신도 담겨 있다. 이같은 평등 정신은 지역민들의 정신적 토양이 됐다.

이번 작품은 총 6막으로 구성됐다. 1막

'광주의 탄생'에서는 무등산의 탄생설화, 2막 '정지장군의 노래'에서는 정지장군의 정신과 공을 담았다. 3막 '김덕령 장군의 노래'는 호국 정신의 계승, 4막 '임진왜란'은 이순신 장군의 승리 과정을 보여준다. 이어 5막 '이별의 노래'는 역사 속에서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영웅들에 대한 애도의 장을 펼치며 6막 '광주여 희망이여'는 현대에서 '광주정신'이 소설 '소년이 온다' 등으로 이어진

과정과 광주의 민주 연대 정신으로 확장된 일련의 과정을 담았다.

각 막은 다양한 시대와 상황을 서정적이고 다채로운 시각 언어로 표현하며 변화하는 호국정신과 민중의 저항을 음악과 무용, 현대적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풀어낼 전망이다.

작품을 선보이는 광주실감콘텐츠큐브 VX스튜디오는 총고 5m 이상의 웅장한 공간으로 아시아 대표 시각효과(VFX) 제작 스튜디오로 꼽힌다. 고성능 렌더팜 시스템, 디지털 색보정실(DI), 음향제작실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춘 이곳에서 작품은 압도적인 몰입도와 완성도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아트 영상과 함께 전문 무용수들의 현대적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시각·청각·감성적 요소가 하나로 융합된 신개념 종합예술이 펼쳐질 예정이다.

정현기 (주)아트주 대표는 "무등산에서 시작된 광주정신은 시대마다 재정의되며 역사적 위기를 극복하는 빛이 돼 왔다"며 "이번 작품을 통해 광주의 정신을 국내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한국 미술 세계로 알린 '단색화' 특강 열린다

'단색화: 무한과 유한' 전시 연계 오늘 오후2시 서구 하정웅미술관 윤진섭 미술 평론가 초청해 진행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단색화'에 대해 깊이 있게 조명할 기회가 마련된다.

29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미술관 2층 6전시실에서 2025 하정웅컬렉션 '단색화: 무한과 유한' 전시와 연계한 특강이 개최된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한국의 단색화, 그 은근과 끈기의 세계'로 윤진섭 미술 평론가를 초청해 진행한다.

윤 평론가는 국내 미술계에서 비평의 지평을 넓힌 인물로 알려졌다. 한국 단색화와 실험미술, 개념미술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로 주목받았으며 평론가로 서뿐만 아니라 제1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와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총감독 등 기획자로



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윤 평론가가 펴낸 저서로는 '글로벌리즘과 아시아의 현대미술', '한국 모더니즘 미술연구', '단색화-미학을 말하다' 등이 있으며 '광주비엔날레' 유공 대통령 표창, 제8회 하정웅미술상 평론가상, 국제미술평론가협회(AICA) 명예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그는 이번 전시 연계 특강을 통해 단색화가 단순한 미니멀리즘을 넘어 한국적 사유와 정신성을 담고 있는 예술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2025 하정웅컬렉션 '단색화: 무한과 유한'은 다음달 25일까지 열린다.

이번 특강은 사전 신청 없이 선착순 무료입장으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찬 기자

곡선으로 발견한 생명의 다름과 포용의 통로

김예지 개인전 'Mind Curve...' 내달 13일부터 화순 소소미술관

화순 도곡에 위치한 복합문화예술공간 소소미술관에서 김예지 작가의 'Mind Curve Fitting - To Me' 전시를 다음달 13일부터 7월1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제2회 지역작가 발굴 전시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지역에 연고를 둔 작가를 선정해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김예지 작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서양화 전공 석사 졸업 후 개인전 8회, 단체전 11회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생명의 다름과 감정의 결, 그리고 이해를 넘어선 '인정'의 순간까지 나아가는 내면의 곡선 여정을 시각화한 작업을 펼쳐낸다. 차이를 품을 수 있는 감정의 미묘한 곡선을 작가만의 회화 언어로 풀어내 선보일 예정



김예지 작 '숨결, 피어나는 시간'. 소소미술관 제공

이다.

그의 작품에는 미시와 거시를 오가는 시선, 예측할 수 없는 생명의 불꽃, 중심이 아닌 흐려진 주변에 집중할 때 보이는 감정의 심연이 담겼다. 이는 곧 작가 자신

이 기억하고 기록한 불안정한 생명의 흔적이자 감정의 잔상이다.

김 작가의 이러한 작업은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감성적 탐색의 여정을 제시할 전망이다.

소소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자리를 넘어, 각기 다른 삶의 결과 감정의 곡선을 이해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예술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작가가 그려낸 곡선의 흐름 속에서 관객들도 스스로의 감정과 조용히 마주해 새로운 시선과 온기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소미술관은 지난 2014년 개관 후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시 및 융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프로그램 또한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예술이 상생하는 문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기획했다. 박찬 기자

아티스트·플로리스트 협업... 'This is for you'

내달 31일까지 담양 대담미술관 진허 작가·김주안 플로리스트

담양 대담미술관에서 아티스트와 플로리스트의 협업으로 마련된 기획초대전 'This is for you'를 다음달 31일까지 선보인다. 전시에는 진허 작가와 김주안 플로리스트가 참여했다.

진허 작가는 그간 여성으로서의 삶을 나이에 빛대어 표현해 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너에게 숲을 줄게' 시리즈를 신작으로 선보인다.

김주안 플로리스트는 꽃을 판매하고, 장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꽃이 갖는 일상 속 철학을 담아 전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예술적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꽃다발, 꽃바구니 등 기존 장식의 틀을 깨고, 채소가 화분 삼아 꽃과 어우러지게 연출했다. 진허 작가의 '너에게 숲을 줄게' 작품에서 영감받아 당근, 브로콜리, 꽃마늘과 꽃을 결합한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대담미술관 최아영 부관장은 "꽃은 피는 순간만이 아니라, 스러지는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아름다움을 지닌다. 꽃이 지고 난 뒤 열매가 맺히는 자연의 흐름처럼, 이번 전시는 꽃이 지고 채소가 돼 가는 과정을 하나의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히 지나쳐온 감정의 순간들을 떠올리고, 작고 따뜻한 마음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지구 반대편 '탱고' 울림 선사하는 '그해 봄날에'

카스티냐 탱고, 내달 3일 콘서트 광주 남구 빛고를 시민문화관

우리나라의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태동한 탱고가 광주의 봄날에 스며든다. 다음달 3일 오후 6시30분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탱고 전문 연주단체 카스티냐 탱고가 해설이 있는 콘서트 '그해 봄날에'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10년간 활동 후 귀국한 음악감독 김아람(사진) 바이올리니스트를 필두로 조영훈(피아노), 김유성(더블베이스), 김종완(반도네오)이 함께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다. 파르텐 편성 연주가 곡에 얽힌 이야기와 더해져 관객의 흥미를 자아내며 이국적이지만 우리의 정서와도 닮아있는 탱고 음악과 광주라는 공간이 가진 역사적 의미의 연결점을 찾아 신선한 무대를 꾸민다.

이번 공연은 1970~1980년대 아르헨티나의 모습을 반영한 탱고곡들로 구성됐다. 같은 시기 광주의 풍경과도 교차되며 시민들에게 특별한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과 광주광역시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박찬 기자

